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노래, 함께 불러요

광주 조정훈씨 '미안해요, 사랑해요' 프로젝트 시작

'조크라테스'로 불리는 조정훈(44)씨는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시인이자, 보컬 강사다. 본업은 보험 설계사.

2년 전 신문에서 종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생한 사연을 읽은 그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그들을 노래로 위로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사회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뛰고 있음도 보여주고 싶었다.

조씨는 생존해 있는 50여명의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나눔의 집에도 다녀오고,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도 찾았다.

그리고 'MISa project-미안해요, 사랑해요'를 시작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공연을 진행하는 기획이다. 녹음과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은 모두 조씨 사비로 충당했다.

준비중인 세 곡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작품 '눈물소녀(youtu.be/dcXKNtA2QTU)의 뮤직 비디오가 유튜브에 공개됐다. 조씨가 작사·작곡한 '눈물 소녀'(Girl in tears)는 딸 이빈(백운초4)이와 함께 부른 노래다.

뮤비는 한국어 드라마를 포함한 10분짜리 버전, 영문 자막을 표기한 드라마 버전(youtu.be/hMPaTdyFpBU), 한국어 노래 부분만 담은 버전(youtu.be/w9-njp8ojCw) 등 3가지로 만들었다. 현재 중국어와 일본어 번역도 준비중이다.

'…조선의 소녀였다오' 등 3곡
작사·작곡·뮤비·공연 기획
'눈물 소녀' 유튜브 공개
초등생 딸 이빈양 참여

8월 서울·11월 광주 공연
테마사진전·상설 콘서트도

드라마 스타일 뮤비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녀상'을 본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아빠와 위안부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딸은 꿈 속에서 '언니'를 만나게 된다.

이빈양의 청아한 목소리에 실려, '나랑 손잡고 놀던 언니를 닮았네/ 함께 뛰놀던 아름다운 소녀'로 시작되는 노래는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가 내곁에 있었던 언니였음을 잔잔하게 들려준다.

임태성 감독이 촬영한 뮤직비디오는 보성 득량마을, 대전, 서울, 광주 일원에서 촬영됐다. 시골의 평화로운 풍경을 담은 맑고 예쁜 영상, 우정을 나누는 두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너무 평화로워 눈물겹다. 조씨의 친구딸인 김예영(동명고 2년)양이 '소녀상'처럼 머리를 자르고 꿈속의 언니로 함께 출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 대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뮤직비디오도 자극적이지 않고 예쁘고 행복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딸 아이에게 아빠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같이 불러보자고 했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답했어요. 뮤직비디오 찍으며 고생도 많았는데 완성본을 보고는 참 좋아하더군요."

조씨는 아이와 함께 창원 파티마 병원에서 열린 고 이효순 할머니 추모제에서 '눈물소녀'를 부르기도 했다.

두번째 곡 '나는 조선의 소녀였다오'는 위안부로 끌려깐 소녀들의 아픔과 눈물을 표현한 곡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터뷰 등을 담아 뮤직비디오를 완성할 예정이다. 현재 노래는 재즈보컬리스트 박은정양이 녹음한 상태다.

조정훈씨 딸 조이빈(오른쪽)양과 동명고 김예영양이 참여한 '눈물 소녀' 뮤직비디오 한 장면.

마지막곡 '미안해요 사랑해요'는 음원 제작 뿐 아니라 각 지역 사람들이 보내온 '미안해요, 사랑해요'사진과 영상을 SNS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제작한 뮤직 비디오 테마 사진전도 열어 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

조 씨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공연 등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뜻을 같이하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해 오는 8월 초 서울과 11월 광주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서울 공연에는 가수 해바라기 등이 참여하며 광주에서는 3~4개월에 한번씩 상설 콘서트를 연다.

"위안부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왜 노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발언이 없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자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몇가지를 시작해 본 겁니다. 노래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상적인 역사적 지식이 아니라, 따뜻한 심장으로 이해하며 역사의 진실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예전문매거진

예향 7월호

보길도·산토리니·하와이…여름휴가 섬, 썸?

'팟캐스트' 인기 비결 조명

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이다. 산으로, 바다로, 휴양지로 가족과 함께 휴가계획을 짜고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설레인다. 올 여름에는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남도의 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예향' 7월호(237호)에서는 특집으로 '섬'을 이야기한다. 고산의 시와 동행하는 보길도, 느림 속으로 흘러가는 청산도, 짙푸른 숨소리를 들을수 있는 금오도 비렁길, 수화 김환기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신안 안좌도까지 예술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남도의 섬을 돌아봤다. 여행 칼럼니스트 노중훈이 소개하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섬 그리스 산토리니와 미국 하와이를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기획 '팟캐스트가 좋다'에서는 스마트폰 혁명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뉴미디어 '팟캐스트'의 모든 것을 조명하고, 대세 팟캐스트 '이이제이' 녹음 현장을 찾아가 인기몰이 비결을 직접 확인해 본다.

이달의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발레계의 대모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이다. 초등학교 6학년때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무용 인생을 시작한 그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을 키워내며 세계 무용계에 이름을 각인시켰다. 교육현장에서 만난 그녀와의 이야기를 전한다.

연중 기획물 '사람이 브랜드다'에서는 조선의 명재상 서애 유성룡의 학덕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과 고택 충효당을 둘러보고, 문화 현장 코너에서는 폐광을 이용한 강원도 문화재생 공간과 젊고 활기찬 담양의 문화 공간 등을 찾았다.

신남도문화여지도는 동학의 기개가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을 찾아가 7월말 열리는 물축제를 미리 만나보고 구수하고 상큼한 된장물회, 여름 갯장어의 쫄깃한 맛을 선사한다. 물이 흐르는 전시장 프랑스루베 라 피신느 미술관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 홍콩으로의 여행도 기대해 볼만 하다. 이외에도 '하이힐' 작가 이매리의 작업실을 들여다보고 '一片心'을 새기는 장도장 박종군씨를 만나본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표정 없는 얼굴, 피로사회의 자화상

로터스갤러리 12일까지 송지윤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12일까지 송지윤 작가를 초대해 '표정 없는 얼굴, 피로사회의 자화상'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 로터스갤러리가 해마다 광주·전남 지역의 신진 작가를 발굴해 진행하고 있는 '제3회 신인작가 기획전'의 하나다. 송씨는 무표정한 사람의 얼굴, 건조한 색채, 정확하게 종을 구분할 수 없는 동물, 가지가 늘어진 나무 등을 이용해 현대사회 도시인의 삶을 보여준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혼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불안감과 무기력감, 외로움이 작품에 담겼다.

작품 속 이미지들은 작가가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시켜 만들어낸 것들이다. 왜곡된 형상, 불정한 구도가 작품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다양한 모양의 패턴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베를린기억 II'

송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에서 석사를 수료했다. 문의 062-383-0108.

/김경인기자 kki@